

“적극적인 행정 정보 전달로 시민 편의 증진”

전주시설공단, ‘이지콜’ 등 운행 차량·체육시설 외벽 등 활용 시정 홍보 나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원활한 시정 운영과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시정 홍보에 나섰다. 공단은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활용해 전주시 행정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 곳곳을 누비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단 ‘이지콜’ 특장차량 62대와 마을버스 ‘바로온’ 전기버스 25대를 활용해 ‘달리는 시정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재산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 납부의 달,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페스타 등의 행정 정보를 담은 자석식 광고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는 방식이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와 같은 현안 정책들이 도



행정 정보를 홍보하며 달리는 전주시 장애인 콜택시 ‘이지콜’

심 구석구석에서 시민들에게 전달된다. 이지콜은 24시간 연중무휴로 도심

주요 대로는 물론 골목 구석까지 시내 전역을 운행한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SNS와 같은 디

지털 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에게까지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 수단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또 화산체육관과 월드컵경기장, 덕진·완산수영장 등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10개 체육시설의 외벽과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정보를 전달한다.

전주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행정용 게시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홍보 효과를 배가한다는 게 공단의 구상이다. 현재 88개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 중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공단이 운영 중인 각 시설들과 운행 중인 차량들은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라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김상남)은 3일 씨앤알코스메틱스(주)(대표이사 옥승찬), (주)바이오엔진(대표이사 김일)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지역 기업에 기술이전

씨앤알코스메틱스·바이오엔진과 협약 체결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 김상남)은 3일 씨앤알코스메틱스(주)(대표이사 옥승찬), (주)바이오엔진(대표이사 김일)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연구원은 △쌀 발효물 및 한약재 추출물을 함유한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화장료 조성물 특허권 △한약재 농축액과 농축분말을 이용해 수율과 청량감이 높은 모주의 제조방법 특허권을 각각 기술실시기업 모집 공고에 최종 선정된 이들 기업에 각각 이전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 중 씨앤알코스메틱스(주)는 2023 정부 글로벌 IP스타기업에 선정돼 다국적기업인 이노패션과 약 1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기로 하

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인도의 아로하 비즈 트레이드사, 8tree 사와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바이오엔진(주)의 경우 ‘전북농생명 분야 대표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어, 연구원은 이번 기술이전 및 협약식을 계기로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상남 연구원장은 “쌀 발효물 및 한약재 농축액의 우수한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사업화가 이뤄지면 지역 농가와 생산자의 소득향상은 물론 연계 산업 발전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제12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원 구성 마무리

전주시의회가 3일 제41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의장과 부의장에 이어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하반기의 정활동에 들어갔다.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은 운영위원장 김원주(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행정위원장 최용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복지환경위원장 김윤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문화경제위원장 전윤미(효지2·4동), 도시건설위원장 박형배(효지5동)의 위원이다. 시의회는 앞서 2일 제2차 본회의를



김원주 운영위원장, 최용철 행정위원장, 김윤철 복지환경위원장, 전윤미 문화경제위원장,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보순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통해 상임위원회별 위원들을 선임했으며, 운영위원장 이남숙 의원 등 9명, 행정위원회 이기동 의원 등 8명,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의원 등 8명, 문화경제위원회 장병익 의원 등 9명, 도시건설위원회 정삼길 의원 등 9명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내년 6월까지 예산 심사 등을 담당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송영진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보순 의원이 선출됐다. 이번엔 구성된 예결위원들은 의장이거나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들로 김동현, 김성규, 김세혁, 김정명,

김현덕, 온혜정, 이국, 이남숙, 이상국, 장병익, 최명권, 최서연 의원 등 모두 14명이다. 선출 위원장들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혁신적인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욱기 기자

남원 15개 학교서 160여명 집단 식중독 의심

교육당국 조사 나서

남원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8분께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식중독 의심환자는 관내 52개 중 15

개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160여명이다. 이들 모두 위장염 및 결장염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60여명 중 140여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20여명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 남원의료원은 재내 의료 대응체계를 가동, 식중독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 중이다. /뉴스스

부안 남남서쪽서 2.3 지진 발생... “피해는 없을 듯”

3일 오후 2시24분43초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70, 동경 126.72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8km다.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진도는 II(2)다.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진동이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스스

‘생활민원 통합 처리’ 불편 최소화

전주시, 8~10일 전담 일자리 시범사업 참여자 20명 모집

전주시가 주민들이 동네의 생활민원을 통합 처리하는 일자리 사업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올해 완산구와 덕진구의 2개 동에서 추진되는 ‘생활민원 통합 전담 일자리’에 참여할 20명을 공개 모집한다.

오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시범 운영되는 ‘생활민원 통합 전담 일자리’는 동 전체 대상으로 구역을 배정하고, 2인 1조로 골목과 이면도로를 샅샅이 누비며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원·하천 정비, 정원, 녹지관리 등 부서별 단위 업무로 각기 추진해 온 생활민원을 통합해 동별 취약지역을 정비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재·중첩된 일자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생활민원 대상은 △불법 유통광고물 수거 △불법투기 쓰레기 신고 △삼초 제거 △포트를 발견 신고 △무단방치 전동 킥보드 및 카오토자전거 정리 등이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65세 미만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서 가구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전주시민이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무 조건은 주 5회, 1일 3시간 근무에, 임금은 시급 980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일자리정책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2396)로 문의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IMSIL-GUN 임실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